

도서관 안에 나와 사회의 미래가 있다

유재욱

(한국비블리아학회 회장,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교수)

yoo@center.duksung.ac.kr

영화 '스파이더 맨'을 보면 스파이더 맨의 아저씨가 뉴욕 공공도서관 앞에서 죽는 장면이 나온다. 작년 8월 13일 뉴욕 공공도서관을 가본 터인지라 영화 속에 나온 뉴욕 공공도서관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공공도서관이 거기에서 거기이고 이 나라나 저 나라나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뉴욕의 맨하탄 한가운데에 자리잡은 뉴욕 공공도서관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는지라 뉴욕에 간 길에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었다. 관광객들 틈에 섞여 안내 사서의 설명을 들으면서 도서관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유리상자안에 보관된 구텐베르크활자로 인쇄된 최초의 성서, 32쪽에 달하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입연설 원고, 유대인부부의 결혼계약서, 1만 6천 건에 달하는 프랑스혁명 팜프렛, 1775년 7월 8일 영국의 조지 3세 왕에게 보낸 The Olive Branch Petition 원본, 1900년도의 일본여인이 바느질하는 판화, T.S. 엘리엇의 황무지 초고원고,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관련 책, 편지, 초고원고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희귀자료를 소장하고 있음을 자랑하였다.

더욱이 공연예술인 연극, 오페라, 뮤지컬, 무용, 영화에 관한 자료를 포스터, 무대장치, 대본, 의상, 관련 사진, 관련 기사, 각 장면 묘사도, 관련 녹음자료 등, 한 공연에 관련된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였고 공연예술 자료는 이제 링컨센터(Lincoln Center) 도서관으로 옮겨갔다고 하였다. 19세기에 어떤 옷을 입고 탱고를 추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그 안내 사서는 정열적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뉴욕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모든 자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름모를 많은 사람들의 기증이라고 끝을 맺었다.

오늘의 뉴욕 공공도서관은 애스터(J.J. Astor), 레녹스(J. Lenox), 틸던(S.J. Tilden), 카네기(A. Carnegie)와 같은 거부의 기증이 있었기에 오늘의 모습으로 발전하였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한 정원사와 같이 자신의 전재산을 기부한 사람은 없었노라고 감동에 찬 목소리로 설명하였다.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은 이민자였고 그 이민자는 유서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미국에 이민자로 첫 발을 디뎠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던 터에 뉴욕 공공도서관은 자신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영어를 배울 수 있었기에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책을 읽을 수 있었기에 정원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으며, 따라서 미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고. 도서관은 자신에게 은인이었노라고.

나는 궁금하였다. 뉴욕 공공도서관은 도대체 그 당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길래 도서관 서비스에 감동한 한 이민자가 전 재산을 기증하기까지 했을까 하고. 나는 도서관내 상점에서 책 한 권을 샀다. 이 책 안에 내가 궁금해 하는 설명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관광객들에게 도서관들을 설명해주던 사서는 도서관의 발전을 기부자들에게 돌렸지만 나는

내가 사온 책을 읽으면서 오늘날의 뉴욕 공공도서관은 수많은 이름모를 사서들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뉴욕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다른 도시의 공공도서관 사서들과 달랐다. 먼저 뉴욕의 사서들은 지역사회주민이 대부분 이민자임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였다. 영어도 모르는 이민자들이 미국이라는 새 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먼저 영어를 배우는 것이기에 사서들은 도서관에서 무료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이 살던 나라의 신문, 잡지, 도서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이 잠시나마 도서관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라는 취지에서다. 젊은이 보다는 나이 많은 이민자들에 대한 배려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타도시의 사서들의 비난도 있었으나 “젊은이도 아닌 나이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로 된 책만 제공하는 것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 당시 사서들은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렇게 해서 뉴욕 공공도서관은 저절로 세계문화의 총 집산지가 되었다. 뉴욕의 사서들은 다른 도시의 사서들과 달리 미국이라는 끓는 냄비(melting pot)안에서 이민자들이 녹아버리려는 ‘미국화’를 원치 않았다.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적인 문화의 개성을 존중하였다.

뉴욕주민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10년 41%였으나 20년 후에도 34%를 유지하였다는 통계를 보면 뉴욕이 얼마나 이민자가 살기에 편한 도시였나를 추측하게 한다. 내가 집어든 책에서 한 이민자는 도서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였다. “뉴욕의 공공도서관은 신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었다.”

작년 8월 한달동안 보스턴, 워싱턴, 뉴욕을 다녀보았다. 가장 편안하고 서울같은 곳은 뉴욕이었다. 다양한 문화가 한 도시에 영겨있는 듯 보였으나 각 문화가 그 개성이 존중되며 인정되는 곳은 뉴욕이었다. 왜 뉴욕이 밀라노, 파리와 함께 세계 3대 패션의 도시가 되었는지, 왜 뉴욕이 모든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알 것 같았다.

그 뒤에는 뉴욕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철학, 해안, 신념을 서비스로 연결한 그들의 의지와 사랑 때문이었다. 도서관의 사서들이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한 사람의 사서의 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직업상 한 일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그들은 상상이나 했을까?

꽃 중의 꽃이 장미라면, 도서관 중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격차, 빈부의 격차, 계층의 격차를 좁혀줄 수 있는 곳은 공공도서관 뿐이다. 책을 자비로 사기 힘든 아이들은 어디에서 책을 볼 것인가? 그저 골목길에서 깡통이나 차며 시비를 벌일런지 모른다. 비디오가 집에 없는 아이들은 어디에서 빌리 엘리엇과 같은 영화를 보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유아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왜 한 달에 몇 만원씩의 회비를 내고 책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읽혀줄 수 밖에 없는가?

공공도서관만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특히 희망과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책안에는 특히 고통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이 책을 통한 서비스를 포기한다면 공공도서관은 죽은 도서관이다.

“내 인생을 바꿀 한 권의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소극적인 이용자들을 적극적인 이용자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잠재적인 도서관 이용자들을 잠재 적극적인 도서관 이용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야 할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